지역구 핑계 밥 먹듯이 회의 불참

■ 제8대 전남도의회 결산

도민의견 수렴 조례 제정·도정 현안 지원 '우수'

예산안 상정 거부·외유성 해외 시찰 행태는 여전

전남도의회가 22일 250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 8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정례회를 열고 '전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등 7건을 심의, 의결한다.

8대 전남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정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 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거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활동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시간때우기식'으로 진행된 맥빠진 행정사무감사나 함량 미달식 도정질문은 나아지지 않았고 집행부와의 '힘겨루기'로 인해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북한 핵실험, 경제난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외유성 해외시찰을 떠나는 행태도 여전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활동을 핑계로 무더기로 회의에 불참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되풀이해 '막장 의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임기를 2개여월 남겨둔 상황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새로 뽑는 등 자리에만 연연하는 구태도 되풀이하면서 도민들을 실망시켰다.

이 때문인지 8대 전남도의회 의원 51명 중 6·2 지방선거에서 고작 13명만 '생존'하는 물갈이가 이뤄졌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지난 4년간 조례안 315건을 포함해 모두 489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 등 대책 촉구 결의'등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 64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전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 등 대책 촉구 결의안'등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데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위원회', '2010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도민 의견 수렴 및 성공 개최에 나선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당대표 정동영·손학규 출마

정세균 대표 재출마에 빅 이벤트될 듯

"당권·대권 분리 당규 등 개정" 주장도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윤곽을 잡아가면서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현 대표는 전당대회에 재출마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정동영 의원도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대리인으로 천정배 의원을 내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천 의원으로서는 정 대표를 이기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직접 출마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물론 전당대회 방법과 당권·대권 분리 등 당헌·당규 개정 방향에 따라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같은 여의도 정가의 급박한 분위기가 지방선거 후 강원도 춘천으로 다시 돌아간 손 전 대표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특히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해 사당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손 전 대표가 조만간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이날 "손 전 대표가 언제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며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전당대회 출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6월 상순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다른 측근은 "지방선거 후 정세균 대표가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지방선거를 이긴 것처럼 오만과 독선을 일삼코 있다는 비판이 당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당이 나가서는 남아있는 재보선을 물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또 다시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당원들로부터 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아직까지 손 전 대표는 물론 측근들도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정 대표와 정 의원, 나아가 손 전 대표까지 전대에 출마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당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를 방불케 하는 빅 이벤트가 된다.

민주당 경선은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이 분리 실시되기 때문에 대표 경선에 출마한 3명 중 2명은 정치적 후유증을 겪어야 한다.

당 입장에선 정치적 손실일 수 있다.

2012년 대선후보 경선의 흥행몰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 중진들을 비롯,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전대에서 3명의 대선후보가 맞붙는 일이 없도록 당권·대권 분리와 집단지도체제 도입 등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정 대표를 위시한 주류 측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 지방선거 승리를 기화로 대선후보까지 단숨에 가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는 마이너리그전이 펼쳐지는데 민주당이 과열된 전대를 하게되면 민심이 다시 떠날 수 있다"며 "당내 어른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세종시 수정안 폐기 및 원안 추구를 위한 야 5당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세종시 원안추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세종시·4대강 공방 치열

국회 상임위

국회는 21일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 법사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4대강 사업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우선 국토해양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시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상임위 부결시 본회의 재부의' 와 관련한 여당의 방침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전개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4대강 사업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해 정부가 현재의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에서는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가 반발하는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과 국방부간 명확한 사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감사원 발표가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면이 있다면서 국방 개혁 대책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한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 처리 문제와 함께 아동 성폭력 근절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전대 7·28 재보선후 개최

8월 하순 유력

민주당은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7·28 재보선 이후인 오는 8월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전대를 둘러싼 논의가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7월 한 달은 7·28 재보선에 힘을 결집하고 전대 문제는 재보선 이후 본격 논의키로 했다"고 노영민 대변인이 밝혔다.

구체적 전대 개최 시점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초 거론됐던 8월 하순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주류 측은 다음달 6일로 마감되는 지도부의 임기 연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도부 사퇴 및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자 이날 재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정세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7월로 앞당기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7·28 재보선 이후 전당대회 개최'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재보선 공심위 구성

위원장에 이미경 사무총장

7·28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7·28 국회의원 재보선을 위해 이미경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11명의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 위원장과 함께 김동철, 김유정, 변재일, 신문식, 안규백, 양승조, 이호웅, 전현희, 조일현, 최규식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1학년도-
대학편입
여름방학을 잡아라! 개강▶7월1일
수도권 주요대학 편입합격 대부분 - 여름방학이 당락을 좌우했다.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대비반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ung.co.kr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227-8088